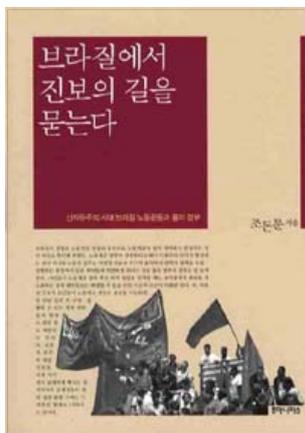




■ 브라질에서 진보의 길을 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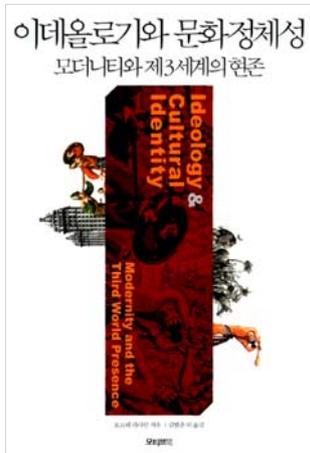


조돈문 (지은이)
출판사: 후마니타스
출간일: 2009-12-29
ISBN(13): 9788964371060
450쪽 | 223*152mm (A5신)

이 책은 ‘좌파 정권’ 이라고 부르는 브라질 룰라 정부가 왜 변혁적 실험을 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진지한 물음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저자는 “인민들이 좌파에게 표를 주는 것은 다른 모든 대안이 효과 없음이 입증된 다음이기 때문에 정권은 최악의 사회 경제적 조건에서 정책 구사를 제한당할 수밖에 없다” 고 말한다. 이런 까닭에 룰라 정부는 시민들의 긍정적 평가와 높은 지지율로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지만, 노동조합총연맹(CUT)과 노동자당 내 좌파들의 실망과 비판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과 평가는 브라질 노동계급의 정치 세력화와 룰라 정부의 경험에 국한되지 않는다. 거칠게 말하면, 현재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권 대부분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역설적이지만, 바로 그렇기 브라질을 보면 좌파가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저자의 문제의식이 더욱 빛난다.

■ 이데올로기와 문화정체성



원제: Ideology & Cultural Identity : Modernity and the Third World Presence (2000)

호르헤 라라인 (지은이) | 김범춘 외 (옮긴이)

출판사: 모티브북

출간일: 2009-02-16

ISBN(13): 9788991195332

반양장본 | 368쪽 | 223*152mm (A5신)

저자 라라인은 칠레 출신으로 영국 버밍엄대학교와 칠레 알베르토 후르타도대학교에서 사회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영어와 스페인어로 활발한 학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책에서 라라인은 대표적인 근현대 철학과 사회이론의 관점에서 이데올로기, 이성, 문화정체성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이 개념들을 오늘날 모더니티와 포스트모더니티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으로 제안한다. 그는 이 개념들을 둘러싼 논쟁을 유럽적인 사고 맥락에서뿐만 아니라 제3세계, 특히 라틴 아메리카와 관련지어 분석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제3세계에 대한 유럽의 견해를 검토하고, 서구 이론들을 문화정체성이라는 시각에서 면밀히 검토해 '이성'과 '인종주의' 사이의 연관에 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고자 하는 것이다.

라라인은 문화정체성과 개인적 정체성 사이의 관계에 맞물려 있는 식민주의, 민족정체성, 본질주의 같은 주제들을 세계화 과정과 결부시켜 다루는데, 서구 유럽이 이성의 이름으로 '타자'와 '타자'의 문화를 왜곡했고, 제3세계의 문화정체성에 관한 유럽의 견해가 지배적인 집단의 이해관계 속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숨기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데올로기적이라고 비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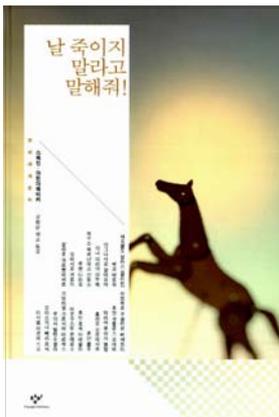
■ 칠레의 밤



원제: Nocturno de Chile (2000)
 로베르토 볼라뇨 (지은이) | 우석균 (옮긴이)
 출판사: 열린책들
 출간일: 2010-02-05
 ISBN(13): 9788932910321
 양장본 | 176쪽 | 188*128mm (B6)

그동안 우리나라에 소개된 라틴아메리카 작가들 가운데 로베르토 볼라뇨(Roberto Bolaño, 1953~2003)만한 깊이와 재미를 보여주는 작가도 드물 것이다. 『아메리카의 나치문학』에 이어 선을 보인 이 작품과 앞으로 연달아 번역될 이 작가의 작품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주목된다.

■ 나를 죽이지 말라고 말해줘!



후안 룰포 외 (지은이) | 김현균 (옮긴이)
 출판사: 창작과비평사
 출간일: 2010-01-08
 ISBN(13): 9788936471774
 양장본 | 300쪽 | 225*153mm

라틴아메리카와 스페인 현대 작가들의 단편소설 19편을 모은 책이다. 루벤 다리오, 후안 룰포, 아르투로 우슬라르 피에트리, 아나 마리아 마투테 등 비교적 우리나라에 덜 알려진 작가들의 주옥 같은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다.